

세계 예술가들이 바라보는 '평화'

정읍시 '국제 아트 페스티벌' 생활문화센터서 다음달 25일까지 54개국 예술가 180명 참여 회화·사진·조각 등 160점 전시



최재용 정읍시 부시장이 제2회 정읍 국제 아트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정읍에서 평화의 가치 조명하는 '국제 아트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다. 정읍시에 따르면 제2회 정읍 국제 아트 페스티벌이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진실: 평화의 축'을 주제로 정읍 신대인읍 생활문화센터에서 펼쳐지고 있다.

국제 아트 페스티벌은 상대적으로 문화환경이 취약한 농촌지역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세계의 평화와 일상의 평화를 다시 찾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세계 예술가들이 바라보는 '평화'의 다양한 모습을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 국제 아트 페스티벌은 지난 14일 시작해 오는 11월 25일까지 이어진다.

전시회에는 엘사 빅토리오스(미국·콜롬비아)와 알폰소 카푸토(이탈리아) 등 총 54개국의 작가 180명이 참여한다. 각국의 예술가들이 평화라는

주제로 회화와 사진, 조각 등 다양한 장르에서 각자만의 의미와 색깔을 녹여내 표현한 작품 160여 점을 엄선해 선보인다.

전시회는 정읍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시간 입장이 가능하다.

전시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정읍시 생활문화센터(063-571-5170) 또는 정읍시청 문화예술과

(063-539-5175)로 문의하면 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상대적으로 문화환경이 취약한 농촌지역에서 세계 각국의 여러 미술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려 기쁘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예술로서 세계인과 소통하며,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오는 28일 개관을 앞둔 남원아트센터에서 세계 18개국 133명의 작가들이 만든 도예작품 전시회가 열린다.

세계 도예작가 133명 협업 대규모 전시

남원아트센터 28일 개관...남원시 기획전 '오늘이 오늘이소서'

남원에서 세계 18개국 133명의 작가들이 만든 도예작품 전시회가 열린다.

남원시는 오는 28일 개관을 앞둔 남원아트센터에서 도예작가 기획전 '오늘이 오늘이소서'의 전시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국내작가 93명과 해외작가 40명이 참여한 이번

전시는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대규모 전시로 전통 도예기법을 계승한 도예작품과 현재 조형미를 중심으로 한 현대 조형작품 등 전 세계의 다양한 도예작품을 선보인다.

제 1전시와 제 2전시로 나뉜 전시는 제 1전시서서 한국 현대도예의 경계와 해체를 주제로 다양한

시도를 통해 그 영역을 확장 중인 현대도예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제 2전시는 남원국제도예캠프 기획초대전을 주제로 남원 도자기의 뿌리를 찾아 잊혀져 간 우리 도자문화의 역사적 우수성을 재조명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했다.

부대행사로 한국 현대도예의 현황을 주제로 작가와의 만남과 남원국제도예캠프 기획초대전 작가 소개 및 작품 설명을 위한 도슨트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가 병행될 예정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 가족센터 민간 위탁운영기관 공모

다문화가족 정착·생활 지원·교육...24~28일 접수

정읍시가 '정읍시 가족센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위탁운영 기관을 공개모집한다.

'정읍시 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 기본법에 근거해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이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생활 지원을 비롯해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는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정읍시 가족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접수기간은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이다.

자격은 건강가정사업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학교,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건강가정사업 또는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기간 내 신청서류를 갖춰 정읍시청 여성가족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위탁기관으로 선정되면 2023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5년간 가족센터 운영 전반을 맡게 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 시민 내년에도 자전거 보험 혜택

1인 3천만원 이하 사고처리지원금

남원시가 내년에도 모든 시민에게 자전거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남원시민이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 사고로 숨지거나 후유장애를 입으면 최대 500만원,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으면 최대 50만원의 위로금을 준다.

또 자전거 사고를 내면 최대 200만원의 변호사

선임비와 피해자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급된다.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혜택을 볼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민이 좀 더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돼 자전거 타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 13개 장애인복지관 '화합 한마당'

3년만에 선운산 걷기대회

고창군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한 걷기대회가 최근 고창군 선운산에서 전북도 내 13개 장애인복지관 이용인 등 3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걷기대회는 전라북도 13개 시·군 장애인복지관 연합사업으로 매년 개최 되었으나 코로나19로 2019년 이후 3년 만에 개최됐다.

시·군 장애인들의 화합과 우정을 나누고 장애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선운산 둘레길 보고 보고 느끼고' 라는 주제로 실시됐다.

또 행사 중에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의 고창군 유치를 희망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또 부대 행사로는 고창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L센터)의 임직원 및 이용인이 함께하는 하모니가 연주 공연을 선보였으며, 체험활동으로 즉석 기념사진 촬영 인화와 아크릴 무드 등 만들기가 진행됐다.

정종만 고창군장애인복지관 관장은 "도내 13개 장애인복지관이 3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함께 교류하고 화합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고창군청, 새 민원복 입고 새출발~

고창군청 종합민원실 직원들이 통일된 근무복을 입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군민을 맞이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고창군은 민선8기 '군민행복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민원복을 착용하고 매주 월·수요일 업무시간 전 민원행정서비스 현장과 주민응대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근무복은 자주색 재킷으로, 편안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민원인들에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통일된 근무복 착용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모든 민원인에 대해 친절하고 신속·정확·공정하게 고객 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창군청 종합민원실 직원들이 마음가짐을 다지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